

北宋 ‘園記’에 나타나는 文人들의 공간 인식*

— 李格非의 《洛陽名園記》를 중심으로 —

李再薰** · 金美羅***

<목 차>

1. 들어가며
2. 園林 空間 造成에 내포되어 있는 문인들의 공간 인식 방법 - 登高
3. 《洛陽名園記》에 나타나는 문인들의 공간 인식
 - 3.1. 개인의 소극적 ‘자연과의 조화’ 추구 공간
 - 3.2. ‘賞花’ 중심의 ‘與民同樂’하기 위한 공간
 - 3.3. 흥망성쇠를 살피는 공간
4. 나오며

1. 들어가며

亭臺閣記(혹은 臺閣名勝記)가 자연과의 일치를 추구한 건축물 관련 記文이라면 ‘園記’는 도시와의 조화를 추구했던 문인들이 구축한 ‘園林’에 대한 記文이다. 중국에서 건축과 경제 그리고 도시의 발달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 관련 記文들은 옛날부터 창작되어 왔으며 宋代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창작 수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

* 본 논문은 2012년도 1월 5일에 한국의 BK21 高麗大學校 中日言語文化敎育研究團과 중국의 陝西師範大 文學院이 주관한 ‘東亞語言文化的研究與探索國際學術研討會’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敎授

*** 高麗大學校 大學院 中日語文學科 博士課程

히 도시 안에서 사대부들이 자신들만의 雅趣를 발산하는 공간으로써 많은 건축물들을 짓고 관련 작품들을 창작하였는데, 자신들이 직접 창작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방면에 뛰어난 문인에게 청탁을 하거나 문인들끼리 서로 증여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北宋 시기의 건축물 관련 記文은 대부분 亭臺閣記(혹은 臺閣名勝記) 혹은 학교를 짓고 나서 학업을 진작시키기 위했던 '學記'였으나, 이 시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문인 원림에 대한 '記文'인 '園記'도 조금씩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園記에는 당시 변화한 도시 안에 자신들만의 意境을 반영하여 건물을 구성했던 의도와 또 그 도시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동시에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했는지가 드러난다. 여기에 그들의 당시 도시와 원림에 대한 공간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건축물 관련 '記文'에 대한 연구들은 미학적 관점과 철학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宋代의 작품은 몇몇 작가의 작품만 단편적으로 다루어질 뿐이며, 대부분의 연구는 明・清代 작품에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宋代 '園記'에 대한 연구는 더욱 미흡한 상태이다. 다만 현재 조경학이나 건축학 분야에서 宋代의 원림 조성에 관해 연구하면서 北宋 李格非¹⁾의 《洛陽名園記》²⁾를 자주 언급하거나 다루고 있는데, 이는 李格非가 《洛陽名園記》에서 隋唐 시기의 원림부터 당시까지의 원림에 관하여 서술하였기 때문에 造景史 혹은 건축사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 하

1) 李格非(약1045 - 약1105)는 北宋시기 文學家로, 字는 文叔이며 山東省 濟南 歷下 사람이다. 宋代 유명한 女詞人인 李清照의 아버지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업에 뜻을 두고 열심이었는데, 특히 '經學'에 관심이 많아 《禮記說》를 저술하였다. 宋 神宗 熙寧 9년(1076)에 進士에 급제하였다. 蘇軾이 그를 특별히 아끼, 蘇軾을 따라 학문을 크게 익혔으며 '蘇門後四學士(李格非, 廖正一, 李禧, 董英)'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그는 문학적으로 산문, 시, 사에 모두 뛰어났는데 이러한 재능이 李清照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영리를 구하지 않은 청렴한 관직생활로 당시에 이름이 났었다.

2) 《洛陽名園記》는 李格非가 紹聖 2년(1095년)에 洛陽 일대의 유명한 園林 19곳을 직접 가서 관찰하고 난 후 기록한 '園記'이다. <後序>를 포함하여 총 20편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문장의 편폭이 비교적 짧으며 의론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어 전형적인 宋代 '記文'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後序>는 《洛陽名園記》 각 편의 의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작품으로, 그의 문학적 성취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겠다.

李格非는 전문 건축가나 조경사가 아니라 문인이었다, 따라서 작품 안에는 문인으로서의 그의 원림에 대한 관점과 공간 인식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李格非의 《洛陽名園記》를 주 텍스트로 삼고³⁾, 작품에 드러난 北宋 시기 문인들의 원림에 대한 공간 인식들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문인들이 원림 공간 구성에 있어 그 공간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던 '登高'와 문학 창작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2. 園林 空間 造成에 내포되어 있는 문인들의 공간인식 방법 — '登高'

중국 건축에 있어서 원림 조성은 '樓臺亭閣' 그리고 '軒齋堂舍'와 그 정신적 기원을 함께 한다. 풀어 이야기하자면, 이들 공간은 자연합일을 추구하는 중국적 특색이 잘 반영되어 있는 공간이자 배경이라 하겠다. 원래 上古 시기의 樓臺亭閣은 통치자에 대한 숭고미의 상징이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신성한 공간이었다고 한다면⁴⁾, 후대로 갈수록 이러한 공간들은 점차 산수 유람을 즐기면서 경물을 감상하기 위한 용도로 짓게 되면서 보편화되었고, 이러한 장소에 올라 작품을 짓는 것이 하나의 문학적·문화적 풍습이 되었다 하겠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名山大川의 주변에는 어김없이 樓臺亭閣을 건축하게 되었고, 이

3) 본고에서는 1965년에 臺灣 藝文印書館에서 출판한 《百部叢書集成》 중의 《古今逸史》 본에 수록되어 있는 《洛陽名園記》를 底本으로 삼았다.

4) 장파(張法)는 칸트의 숭고미와 연관시켜, 중국의 누대가 가진 숭고미를 '登高'에 중점을 두고, 누대에 나타나는 숭고미란 누대에 올라 하늘을 우러러 우주의 위대함을 살피고 아래로 만물의 변영을 관찰함으로써 사방을 멀리 조망하는 중국인의 우주적 인생관이라고 하였다. 이 점은 '登高'라는 행위가 중국 문인들의 창작에 영향을 주었다는 관점과 상통한다. 장파 저, 유종하 등 옮김,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파주: 푸른숲, 2009), 228쪽 참조.

때의 樓臺亭閣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거나 자연의 경물을 보다 더 잘 감상할 수 있도록 건축되는 자연중심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이는 적극적으로 자연과 합일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심리의 소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행위 즉 ‘登高’는 중국인들에게 있어 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문학적으로는 역대로 많은 문인들은 ‘登高’ 후에 자신의 슬픔과 걱정, 고향에 대한 鄉愁를 나타내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⁵⁾ 이러한 감정들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서로 복합적으로 얹혀져서 드러나기도 한다. 《詩經》 <召南·草蟲>·<鄘風·載馳>·<鄘風·定之方中>·<小雅·杕杜> 등의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표현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⁶⁾ 이후 孔子가 農山에 올라 제자들에게 각각 자신들의

5) 중국의 瞿明剛과 李園은 ‘登高’라는 행위를 문인들이 자신들의 비애감 표출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귀납시켰다. 그러나 ‘登高’의 문학적 목적을 비애감 표출로만 한정시키는 것은 너무 범위가 좁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臺閣名勝記’와 연관지어 宋代 ‘臺閣名勝記’의 특징 중 하나인 ‘議論’으로 확대하여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議論’은 작가의 사상과 감정 표출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주변의 경물과 어우러지게 하여 표현하여 승화시키는 즉, ‘意境(情景交融)’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姜曉紅은 좀 더 세부적으로 唐詩 속에 드러나는 ‘登高’ 형상에 대해 6가지로 귀납시켰는데, 그가 분류한 것 중 ‘登高한 후에 연회를 베풀며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즐겼던 것’과 ‘자연으로의 회귀하여 은일하는 삶 추구’, 그리고 ‘나라와 사회, 그리고 옛날을 그리워하며 당시 時態에 대한 근심과 비탄’이라는 형상이 《洛陽名園記》에 나타나는 주된 공간 인식적 특징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항목이라고 본다. 瞿明剛, <試論中國文學의登高主題>, 《江海學刊》, 1994년 2월과 李園, <淺析登高母題發生期之特徵>, 《貴州社會科學》, 2007년 第1期, 그리고 姜曉紅, <唐詩中的登高意象初探>, 《韓山師範學院學報》, 2007년 第2期 참조.

6) 신하영은 <登高遠望形象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登高遠望’의 예로 《詩經》에서 <召南·草蟲>의 “저 남산에 올라, 고사리를 뜯노라. 君子를 만나보지 못한지라, 근심하는 마음이 간절하구나.(陟彼南山, 言采其蕨. 未見君子, 憂心惓惓).”, <鄘風·載馳>의 “저 阿丘에 올라, 貝母를 캐노라. 여자가 근심을 잘한다 하지만, 또한 거기에도 각기 이유가 있어서라(陟彼阿丘, 言采其蟲. 女子善懷, 亦各有行).”, <鄘風·定之方中>의 “저 옛 성터에 올라, 楚丘를 바라보노라. 楚丘와 堂邑를 바라보고, 큰 산 높은 언덕 자세히 헤아려보다가, 내려와 뽕나무를 살피니, 점괘에 길하다 하더니 끝내 진실로 중구나.(升彼虛矣, 以望楚矣. 望楚與堂. 景山與京. 降觀于桑, 卜云其吉, 終然允臧).”, <小雅·杕杜>의 “저 北山에 올라가 杞나물을 뜯노라. 王事가 끝나지 않는지라, 우리 부모님을 걱정시키는구나.(陟彼北山, 言采其杞. 王事靡盬, 憂我父母).”를 들고 설명하였는데, 사실 《詩經》의 여러 편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행위는 종종 등장한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행위는 어떤 감정에 대한 詠懷의 동기가 되며, 그 감정은 대부분 슬픔과 근심 걱정, 그리움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는 일본의 시라카와 시즈카(白川靜)의 《詩經研究》를 재인용하여 “《詩經》에 보이는 모든 행위의 묘사는 단순히 일상적 동작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노래하는 것 자체에 주술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중국의 瞿明剛 또한 <試論中國文學의登高主題>에

포부를 말하게 한 고사나⁷⁾ 《漢書·藝文志》의 <詩賦略>에서 《毛傳》을 인용하며 서술한 내용⁸⁾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登高'를 통해 정신을 고양시키고 사물의 본질에 대해 감지하며 그것에 대한 감흥을 언어로써 표현하는 것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南朝 시기 劉勰이 문학 창작론에 해당하는 《文心雕龍·神思》에서 "산에 오르면 생각과 감정이 산의 경치로 충만하게 되며, 또 바다를 바라보면 뜻과 생각은 그 바다의 모습으로 흘러넘치게 된다."⁹⁾고 한 것에서 이미 魏晉南北朝 시기에 문학적으로 '登高'에 대한 인

서 《詩經》에서의 '登高' 행위는 上古時期의 宗教의 祭祀儀式, 봄에 杜鵑새를 지내기 위해 春臺에 올랐던 生殖崇拜儀式, 그리고 重陽節(음력 9월 9일)에 높은 곳에 오르는 주술화된 풍속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李澤厚가 《미의 역정(美的歷程)》의 1章 <龍飛鳳舞>에서 《詩經》에 나오는 사물과 행위들을 토대미증적으로 해석한 것과 유사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詩經》의 내용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학성을 배제하고, 단지 주술적인 목적의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소 건강부회의 위험성이 있다 하겠다.

그리고 《詩經·鄘風·定之方中》 중의 '끝내 진실로 좋도다(終然允臧)'에 대한 《毛傳》에서 "나라를 세울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해 점을 치니, 높은 곳에 올라 賦를 쓸 수 있어야 하며 君子가 이 아홉 가지에 능하면, 가히 德音이 있다 말할 수 있으며 대부가 될 만하다.(建國必卜之, 升高能賦 君子能此九者, 可謂有德音, 可以爲大夫)"라고 한 것이 '登高'와 문학 창작을 연관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 7) 《孔子家語·觀思》: "孔子께서 북쪽의 農山으로 유람을 가시자, 子路·子貢·晏淵이 곁에서 시중을 들었다.孔子께서 사방을 둘러보시더니, 크게 한숨을 쉬시고 탄식하며 말씀하시길,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니, 이르지 않는 데가 없구나! 너희들은 각자 자신의 뜻을 말해 보아라. 내가 장차 그 중에서 택하겠다.'(孔子北遊於農山, 子路、子貢、顏淵侍側. 孔子四望, 喟然而歎曰, '於斯致思, 無所不至矣! 二三子各言爾志, 吾將擇焉。') 참조.
- 8) 《漢書·藝文志》<詩賦略>: "《毛傳》에서 이르길, '노래하지 않고 읊조리는 것을 일러 賦'라고 한다. 높은 곳에 올라 능히 賦를 지을 수 있으면 가히 대부가 될 만하다.'라 하였다. 사물에 감흥이 일어 그것을 文辭로 발할 수 있고, 재주와 지혜가 깊고 아름답다면 가히 더 불어 일을 도모할 수 있기에 가히 大夫가 될 만하다고 말한 것이다. 옛날에는 諸侯와 卿, 大夫가 이웃 국가와 교섭할 때 微言으로써 서로 파악하였으니, 서로 만나 揖讓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를 인용하여 그 뜻을 표하였는데, 賢者인지 不肖한 사람인지 변별하여 盛衰를 살피기 위함이었다.(《傳》曰, '不歌而誦謂之賦, 登高能賦可以爲大夫.' 言感物造興, 材知深美, 可與圖事, 故可以爲列大夫也. 古者諸侯卿大夫交接鄰國, 以微言相感, 當揖讓之時, 必稱詩以諭其志, 蓋以別賢不肖而觀盛衰焉。')"
- 9) 《文心雕龍·神思》: 登山則情滿于山, 觀海則意溢于海.
그리고 이 부분 외에 《文心雕龍·詮賦》에도 '登高'와 문학창작을 연관시킨 부분이 있다. "《毛傳》에 말하기를, '높은 곳에 올라가서 賦를 지을 수 있으면 大夫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높은 곳에 올라 賦를 짓는 뜻을 따져보면, 대저 경물을 보고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다. 감정은 외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에, 뜻은 반드시 분명하고 전야해야 한다. 景物은 (작가의) 감정을 통하여 살피게 되기 때문에 문사는 반드시 교묘하고 아름다워야 한다."("《傳》云, '登高能賦, 可爲大夫.' 原夫登高之旨, 蓋睹物興情. 情以物興, 故義必明雅. 物以情觀, 故詞必巧麗.")라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비록 賦에 관한 내용이지는 하지

식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옛날부터 음력 9월 9일 重陽節에는 높은 곳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며 가을 경치를 감상하고 연회를 즐기는 세시풍속이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인들이 무의식적으로 ‘登高’를 통해 자연 합일을 지향하고 시도하였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높은 곳에 세웠던 건축물인 樓臺亭閣과 그에 관한 문학작품인 ‘臺閣名勝記’에도 이러한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軒齋舍堂’은 주로 개인의 거주 공간 안에 조성한 건축물들이지만, 그 성격은 자연 속에 세우는 ‘樓臺亭閣’과 유사하다 하겠다. 北宋 시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 도시의 형성, 교육 기회의 증대 등 여러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 서민들의 문화 및 교육 수준도 자연히 향상되었다. 그리하여 이전에 일부 계층들만 주로 향유하였던 자연 속의 樓臺亭閣이 민중들에게 점차적으로 보편화되었다. 이렇게 되자 宋代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문인사대부들은 자신들만의 특색과 의향을 나타내고 강조하고자 하면서 樓臺亭閣을 다 갖추고 있되 다소 차별화된 공간인 ‘文人 園林’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¹⁰⁾ 이러한 경향은 이전의 문인들이 자신이 직접 적극적으로 자연에 뛰어들어 건축물을 조성하여 그 안에 은일하면서 자연합일을 추구했던 것과 달리, 자기 주변에 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소극적으로 은일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인사대부들은 원림을 단순한 거주 목적의 실용 공간이 아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하였고, 그곳의 세부적인 요소에도 자신들의 심미 의식과 이상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각각의 원림에는 그 조성자의 개성이 반영된 고유한 특색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원림이라는 공간은 감상과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수 공간이었다 할

만, ‘登高’를 글의 창작과 연관시킨 것은 문학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10) 宋代 名人들의 원림 보유 상황과 그 위치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경물에 대해 侯迺慧의 《宋代園林及其生活文化》 207-219쪽까지에서 표로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문인 원림으로는 洛陽에 조성되었던 文彥博의 東園, 司馬光의 獨樂園, 呂蒙正的 呂文穆園이 있고, 蘇州에 있던 蘇舜欽의 滄浪亭, 鎮江에 있던 沈括의 夢溪園 등이 있다. 侯迺慧, 《宋代園林及其生活文化》(臺北: 三民書局, 2010), 207-219쪽 참조.

수 있다.

건축학적으로 중국의 건축물은 그 자체 공간과 거기에 어우러지는 경관을 구상함에 있어 대부분 감상자로 하여금 정제된 상태가 아닌 연속된 흐름을 통해서 파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건축 공간에 대해 파악하고 감상할 때에는 그 안에 있는 많은 변화에 중점을 두고 살펴야 한다.¹¹⁾ 이러한 특징은 '園林'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정적인 공간 안에 회랑과 같은 평면적 굴곡, 그리고 假山과 연못, 울퉁불퉁한 돌길 등 지형적 높낮이에 변화를 주는 등 동적인 요소를 첨가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중 지형의 높낮이는 감상자의 시점에 변화를 주어 '仰視'와 '平視' 그리고 '俯視'를 유발하게 하는 요소이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감상자가 원림 공간을 인식하게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仰視는 위를 우러러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에 대해 경외를 느끼고 찬탄하는 효과를 유발하며, 平視는 여러 구성 요소들 자체와 그 시기를 있는 그대로 감상하면서 즉각적이면서도 직접적인 감정을 풀어 내게 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그리고 俯視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멀리 지상의 만물과 세태를 살피고 반성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유발하는 효과들은 '登高' 후에 얻게 되는 意象들과 상통한다 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원림은 단순한 일상 공간이 아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수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3. 《洛陽名園記》에 나타나는 문인들의 공간 인식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北宋 시기에는 많은 문인사대부들이 자신들만의 원림을 조성하게 되면서 문학적으로 이 건축물들에 대한 '記文'의 창작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다.¹²⁾ 北宋 末期의 인물인 李格非의《洛陽名園記》는

11) 러우청시 저, 한민영 등 역, 《원림》(서울: 대가, 2009), 150쪽 참조.

北宋 시기 문인들의 원림 구성에 관한 것을 하나로 총괄하고 있는 작품으로 북송 시기 ‘園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洛陽名園記》에는 北宋 문인들의 원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그에 대한 공간 인식이 어떠했는지 잘 나타나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문장에서 낙양의 여러 원림들에 대해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서술하고 또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냈다. 여기에 원림에 대한 당시 문인들의 심미관과 또 공간 인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장에서는 《洛陽名園記》를 중심으로 北宋 시기 문인들의 원림조성과 문인들의 문학 창작 근원 행위인 ‘登高’를 기본 배경으로 하여 그에 따른 감상자의 시점 변화를 통해 얻게 되는 공간 인식들을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1. 개인의 소극적 ‘자연과의 조화’ 추구 공간

문인 원림의 공간 구성은 기본적으로 울창한 산(山)으로 둘러싸여야 하며, 또 그곳에 샘 또는 연못(水)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원림이 산수 간에 유람하는 즐거움을 대신해주는 공간일 뿐이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게 하는 공간의 내부 배치와 편안한 분위기 조성은 번다한 일상과 공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사적인 교유의 즐거움을 누리기에 적합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인 원림들은 휴식과 감상을 중시했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원림 조성에는 자연 속에 은거하며 조화를 이루고 살고자 하였던 중국 문인들의 전통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쑤나라 때 王康璩의 <反招隱>이라는 시에 ‘小隱은 깊은 산중의 수풀 속에 은거하는 것이고, 大隱은 조정

12) 사실 北宋 시기 園記는 明清 시기 ‘園記’와는 달리 막 문체적인 특징으로 한정시키기 모호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臺閣名勝記의 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그 건축물들은 원림 안에 조성된 것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北宋 시기에 문인들의 원림 조성이 흥성함에 따라 하나의 갈래로 나와 창작되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沈慶浩, 《漢文 散文의 美學》(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216-221쪽 참조.

과 저자거리에 은거하는 것이라, 伯夷는 수양산에 숨었고, 老子는 柱史 벼슬 속에 숨었다네.¹³⁾라는 詩가 그것을 잘 나타내는 예이다. 자연에 숨어서 벼슬에 나가가지 않는 것이 小隱이고, 명리를 다투는 곳에서 정신적 은일을 구가하는 것이 大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大隱' 즉, 조정의 관직에 종사하면서도 별도로 개인적인 공간을 구축하여 자연의 산수를 꾸며 자연과 조화·합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朝隱'이야말로 문인들이 원림을 조성하게 된 기본 배경이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원림은 도시 속의 작은 유토피아로, 자연의 아름다움이 현실화되고 조성자의 심미의식에 의하여 구조화된 미적공간이자 실제적인 삶의 공간인 것이다. 이것은 북송 시기 여러 문인들의 園記에 잘 나타나 있다.¹⁴⁾ 《洛陽名園記》에 문인들의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園林에 대해 기록한 것들이 적지 않다. 먼저 <富鄭公園>을 살펴보겠다.

洛陽의 園池는 隋唐 시대의 옛 것을 이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오직 富鄭公園만이 가장 최근에 연 것인데 경물이 가장 빼어났다. 鄭公은 정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빈객을 사절하였다. 이 園林에서 한가로이 쉰 것이 거의 20년이었는데, 정자와 누대, 꽃과 나무들이 모두 그가 눈으로 일구고 마음으로 다듬은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불구불하거나 종횡으로 뻗어 있는 것과 탁 트이거나 은밀한 것 모두 꼭진하게 깊은 생각을 담고 있다 하겠다.¹⁵⁾

富鄭公園은 富弼(1004-1083)¹⁶⁾이 조성한 원림이다. 위의 글에서 富弼은 정무가 끝난 개인 시간은 반드시 자신의 원림 안에서 쉬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조성한 이 원림 자체는 복잡한 현실에서 유리되어 있는 개인적이면서도 폐쇄적인 공간으로서 오로지 자신의 수양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었던 것

13) 《文選》 卷22, 王康璩의 <反招隱>: 小隱隱陵藪, 大隱隱朝市, 伯夷竄首陽, 老聃伏柱史.

14) 예를 들자면 王禹偁의 <李氏園亭記>와 <野興亭記>, 蘇軾의 <靈壁張氏園亭記> 등이 있다.

15) <富鄭公園>: 洛陽園池, 多因隋唐之舊, 獨富鄭公園, 最爲近闕, 而景物最勝. 鄭公自還政事歸第, 一切謝賓客. 燕息此園, 幾二十年. 亭臺花木, 皆出其目營心匠, 故逶迤衡直, 闔爽深密, 皆曲有奧思.

16) 富弼: 河南人. 宋 仁宗과 神宗 때 모두 재상을 지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富韓公' 혹은 '富鄭公'이라고 불렀다.

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 원림은 그가 소극적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던 공간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이 원림의 경물 배치에 있어서 자신의 심미적 관점에 따라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宋代 문인들은 변화한 도시 안에서 폐쇄적이면서도 소극적으로 자연 속에서 정신적인 즐거움과 일치를 추구하였다. 그들이 조성한 원림은 상당히 감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림의 조성자가 하나하나의 경물에도 자신이 추구하는 자연의 이미지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즉, 원림을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향을 형상화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조성하였다 할 수 있다. 富弼의 富鄭公園 또한 단순히 그 자리에서 조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관찰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에서 이러한 면모가 엿보인다.

洛陽에 조성된 대부분의 원림은 물이 있는 풍경과 꽃과 나무가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적은 수의 廳堂과 亭榭만을 건립하여 자연의 풍취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도록 조성한 특징이 있다.¹⁷⁾ <董氏西園>과 <東園>에서도 당시 洛陽의 원림이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면모가 나타난다.

또 서쪽으로 堂이 하나 있는데, 대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에 石芙蓉이 있고, 물이 그 꽃(石芙蓉)의 사이에서 솟아 나온다. 軒의 창을 열면 사방이 매우 탁 트이고, 무더운 여름 찌는듯한 더위에도 뜨거운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맑은 바람이 문득 불어오면 머물러 떠나지 못하며, 그윽한 새들이 조용히 울어대며 각기 득의함을 자랑한다. 이것이 산림의 경치인데, 洛陽城 가운데 마침내 이곳에서 이를 얻었다.¹⁸⁾ [董氏西園]

文潞公(文彦博)의 ‘東園’은 원래 藥園였는데, 땅이 東城과 가깝고 물이 아득하면서 매우 넓어 배를 띄우고 노니는 사람들이 마치 江湖의 사이에 있는 것 같다. ‘淵映’과 ‘灋水’ 두 堂은 또렷하게 물 가운데 (비춰져) 있다. ‘湘膚’와 ‘藥園’ 두 堂 사이

17) 姜泰昊, <中國 洛陽城의 空間構造 및 園林 研究>, 《韓國庭園學會誌》 17輯, 1999, 11-12쪽 참조.

18) <董氏西園>: 又西一堂, 竹環之, 中有石芙蓉, 水自其花間湧出, 開軒窓, 四面甚敞, 盛夏燠暑, 不見畏日, 清風忽來, 留而不去. 幽禽靜鳴, 各誇得意. 此山林之景, 而洛陽城中, 遂得之於此.

에는 水石이 널려져 있으며, 서쪽으로 그의 집과 한 리 남짓 떨어져 있다. 지금 文潞公은 관직이 太師이고 나이가 아흔임에도 오히려 때때로 지팡이를 짚고서 그곳으로 노닐러 간다.¹⁹⁾〔東園〕

위의 부분에서 董氏西園과 東園 이 두 곳은 전형적인 낙양 원림의 특색인 물이 있는 풍경을 중심으로 조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대나무이다. 대나무는 사시사철 늘 푸르고 그 짙 짙 뻗어나가는 형상과 잘 굽히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대대로 문인들이 절개의 상징으로 숭상하였던 제재이다. 그리하여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아취를 발산하기 위하여 주변에 항상 대나무를 두었다. 이는 원림 구성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그 의미는 원림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자 함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전에는 황궁의 囿園이라든가 귀족들의 별장처럼 규모가 큰 것을 추구하였는데, 北宋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점차적으로 문인사대부들이 추구하였던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풍격을 지향하게 되었다. 司馬光의 <獨樂園>에 이러한 면모가 잘 나타난다.

司馬溫公이 洛陽에 있으면서, '迂叟'라 自號하고 정원을 '獨樂園'이라 하였는데, 정원이 작아서 다른 정원과는 같은 반열에 놓을 수 없다. '讀書堂'이라는 것은 수십 개의 서까래로 지은 집이고, '澆花亭'이라는 것은 더욱 작다. '弄水種竹軒'이라는 것은 더욱 작고, '見山臺'라는 것은 높이가 尋丈을 넘지 않는다. '釣魚庵'과 '採藥圃'라는 것은 단지 대나무 끝가지로 엮어 매고 덩굴풀을 울타리로 삼아 만들었을 뿐이다. 사마온공이 스스로 서문을 지었고, 여러 정자와 누대의 시가 자못 세상에 알려졌다. 사람들에게 흠모 받게 된 까닭은 정원에 있지 않을 따름이다.²⁰⁾

19) <東園>: 文潞公東園, 本藥園, 地薄東城, 水渺瀰甚廣, 汎舟游者, 如在江湖間也. 淵映、瀟水二堂, 宛宛在水中. 湘膚、藥圃二堂間, 列水石, 西去其第里餘. 今潞公官太師年九十, 尚杖屨游之.

20) <獨樂園>: 司馬溫公在洛陽, 自號迂叟, 謂其園曰'獨樂園'. 園卑小, 不可與他園班. 其曰'讀書堂'者, 數十椽屋. '澆花亭'者, 益小. '弄水種竹軒'者, 尤小. 曰'見山臺'者, 高不過尋丈. 曰'釣魚庵'、曰'採藥圃'者, 又特結竹杪, 落蕃蔓草爲之爾. 溫公自爲之序, 諸亭臺詩, 頗行於世. 所以爲人欣慕者, 不在於園耳.

당시 낙양에 지어진 원림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컸지만, 司馬光은 이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작게 구성하였음을 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그가 조성한 원림은 비록 규모가 작았지만 꽃과 대나무, 물이라는 기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원림의 이름을 ‘홀로 즐기는 정원(獨樂園)’이라고 한 것에서 그가 변화한 도시 안에서도 이 원림 안에서 혼자 한가로이 지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문인 원림들은 그 안에서 즐기고 유람하되 외부와는 단절을 추구하는 폐쇄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것은 山水 안에서 ‘獨善其身’하고자 하였던 魏晉 南北朝시기와 唐代 귀족 문인들의 특성에서 그 연원을 살펴볼 수 있다.

<趙韓王園>은 당시 개국 공신이자 皇親인 趙普가 조성한 원림으로, 이전 시기의 원림과 마찬가지로 원림조성자의 폐쇄적인 공간 인식 성향이 두드러진다.

趙韓王宅의 정원은 國初에 將作에게 조칙을 내려지었던 까닭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것이 거의 궁궐이나 관청과 비슷하다. 韓王이 태사로 이 저택에 돌아오고 백 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자손들이 모두 京師에 집을 두고 있어서 드물게 거처하였으므로 정원과 연못도 빗장과 자물쇠를 항상 걸어두었다. 높고 큰 정자에는 꽃과 나무가 무성한데 명절날에 단지 廐養만이 그 사이에서 비를 들고 쓸고 삼태기를 지고 삼질을 할 뿐이었다. 대개 사람이 閑居하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양 스스로 아끼는 것은 응당 명성과 작위보다 더 심하다 할 것이다.²¹⁾

부재중에는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잠가 두고 외부의 접촉을 막고자 했다는 데에서 일차적으로 조성자의 폐쇄적인 면모가 나타난다. 그러나 문인 원림 자체가 변화한 도시라는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섬, 즉 독립된 공간의 유토피아를 지향하여 구축한 것인 만큼 자체의 그 폐쇄적인 성격은 어떤 면에서 필연적이라 하겠다. 그렇기에 문인들이 사회적으로는 관리로서 다수를 위해 공무를 처리하면서도, 원림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철저히 모든 것을 잊고 개인의 이상

21) <趙韓王園>: 趙韓王宅園, 國初, 詔將作營治, 故其經畫制作, 殆侔禁省. 韓王以太師歸是第, 百日而薨. 子孫皆家京師, 罕居之, 故園池亦以扁鑰爲常. 高亭大榭, 花木之淵藪, 歲時獨廐養擁篲負畚鍤者於其間而已. 蓋人之於宴閑, 每自吝惜, 宜甚於聲名爵位.

만을 추구하고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고자 하였음이 여러 작품에서 드러난다.

요컨대 원림이라는 공간은 문인들에게 있어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사회 생활에 임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소극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이중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반영되는 공간이라 하겠다.

3.2. 賞花 중심의 '與民同樂'하기 위한 공간

北宋 시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원림이 주로 조성되었는데, 관청에서 만드는 '公園'과 그리고 개인이 만드는 '私家園林'이다. 특히, 洛陽에는 유명한 私家園林이 많이 조성되었는데 이 사가원림들은 대부분 科擧를 통해 관직에 오른 文人士大夫들이 조성한 것들이었다.²²⁾ 이들은 자신들의 원림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기도 했지만 봄에 꽃이 피면 일반 대중에게 개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의미에 있어서 공공의 문화오락 장소가 되었다.²³⁾

北宋 시기 邵伯溫의 《邵氏聞見錄》 중에 洛陽의 유명한 정원에서 모란이 활짝 필 때 그곳에서 있었던 풍속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해마다 정월에는 매화가 이미 꽃망울을 터뜨리고, 2월에는 복사꽃 오얏꽃 등 온갖 꽃이 만개하며, 3월에는 모란이 핀다. 꽃이 무성하게 피는 곳에 園圖를 만들어 사방의 기예가 뛰어난 자들이 모두 모이게 되며, 도시 사람들과 부녀자들이 술을 싣고 다투어 나와 園亭의 경치 좋은 곳을 골라 다른 누대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술잔을 가득 채우고 권하면서 노래 부르면서도 그 주인이 누구인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²⁴⁾

22) 侯酒慧, 앞의 책, <私園開放與公園衆多>, 29-44쪽 참조.

23) 사실 이미 唐나라 때에도 극히 일부지만 節氣에 따라 황가원림을 백성들에게 개방하기도 하였는데, 제왕과 왕족 그리고 백성이 한데 어울려 즐기는 문화는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자면 長安城 동남쪽에 위치했던 曲江池에는 '芙蓉園'이 있었는데, 이곳은 해마다 음력 3월 3일 上巳節과 9월 9일 重陽節에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개방하였는데, 이때마다 화려한 노점들이 호수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서 백성들이 함께 음주가무를 즐기며 축제를 열었다고 한다. 러우칭시, 앞의 책, 23-24쪽 참조.

사실 낙양뿐만 아니라, 西京 및 몇몇 지역에서도 모란이 활짝 필 때 그 지역의 太守가 ‘萬花會’라는 행사를 꽤 큰 규모로 거행하기도 했다.²⁵⁾ 이를 통해 보건대, 송대의 원림은 규모도 컸을 뿐 아니라 ‘꽃’을 다른 경물들보다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낙양은 대대로 ‘洛陽花’라고 칭해질 정도로 모란이 유명하여²⁶⁾, 낙양의 모란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기도 하였다. 낙양에서의 모란은 ‘賞花’를 통해 낙양의 백성들과 문인들이 서로 교류하는 매개체이기도 하였다. 《洛陽名園記》의 <天王院花園子>가 바로 이렇게 모란을 감상하며 ‘與民同樂’ 하고자 했던 공간이었다.

洛中の 꽃은 매우 종류가 많은데, 유독 모란만을 ‘花王’이라 한다. 무릇 모든 정원에 다 모란을 심었는데도, 유독 이곳을 ‘花園子’라고 한 것은 대개 다른 연못이나 정자가 없고 다만 모란 수십만 그루가 있기 때문이다. 무릇 성 가운데 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 집을 두고 있다. 꽃피는 시절이 되면 장막을 치고 저자를 벌이고 그 가운데에서 管絃을 연주한다. (이때에) 성 안의 아녀자들은 불을 지피 밥을 하지도 않고 그곳에 유람하러 온다. 꽃피는 시절이 지나면 다시 폐허가 되어 무너진 담장과 부엌 흔적이 서로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다. 지금 모란은 해가 갈수록 더욱 불어나지만 姚黃과 魏紫는 한 가지에 천금이나 되어, 姚黃은 파는 사람이 없다.²⁷⁾

24) 《邵氏聞見錄》 卷17: 歲正月梅已花, 二月桃李雜花盛開, 三月牡丹開. 於花盛處作園圃, 四方伎藝舉集, 都人士女載酒爭出, 擇園亭勝地, 上下池台間引滿歌呼, 不復問其主人.

25) 汪聖鐸은 《墨莊漫錄》 卷9를 인용하며 “西京의 모란도 천하에 유명하였는데, 꽃이 활짝 피었을 때 태수는 萬花會를 열었다. 사람들이 모이고 연회하는 장소는 꽃으로 휘장과 병풍을 삼았고, 또 들보와 서까래 그리고 두궁에는 모두 대나무 통에 물을 채우고 꽃을 꽃아 못으로 박아 걸어놓았는데, 눈을 들어 보면 온통 꽃이었다. (西京牡丹, 聞于天下, 花盛時, 太守作萬花會. 宴集之所, 以花爲屏帳, 至于梁棟柱栱, 悉以竹筒貯水, 插花釘掛, 舉目皆花也)”라고 하였다. 汪聖鐸, <宋代種花、賞花、簪花與鮮花生意>, 《文史知識》, 2003년 7期, 68쪽 참조.

26) ‘洛陽花’로 지칭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清代 李汝珍의 《鏡花緣》에 실린 설을 꼽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則天武后가 御苑의 꽃들에게 아침까지 일제히 꽃을 피워 봄을 알리라 하였는데, 오직 모란만이 꽃을 피우지 않아 뿌리째 파서 불에 태운 후 洛陽으로 내쳐버렸기에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권(서울: 넥서스BOOKS, 2004), 183-187쪽 참조.

27) <天王院花園子>: 洛中花甚多種, 而獨名牡丹曰‘花王’. 凡園皆植牡丹, 而獨名此曰‘花園子’, 蓋無他池亭, 獨有牡丹數十萬本, 凡城中賴花以生者, 畢家於此. 至花時張幙幄, 列市肆, 管絃其中, 城中士女絕烟火游之. 過花時則復爲丘墟, 破垣遺竈相望矣. 今牡丹歲益滋, 而姚黃魏花

‘天王院花園子’는 위에서 낙양의 많은 원림이 물을 중시했던 것과는 달리 순수하게 모란만 심어 구성한 정원이다. 즉, 단지 ‘賞花’를 위해 조성한 원림이라 하겠다. 이곳의 꽃이 만개했을 때에는 온 성안의 남녀들이 일을 중단하고 서로 어우러져 즐기며 꽃을 감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막을 치고 저자를 벌이는 것에서 그때 당시 도시의 변화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姚黃과 魏紫는 민가의 姚氏네 집에 나는 황색 모란과 재상인 魏仁溥의 집에 나는 자색 모란을 가리킨다.²⁸⁾ 여기에서도 민가와 관리가 모두 賞花를 위해 모란을 가꾸고 감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낙양에서 모란은 원림을 조성하는 꽃 중에서도 필수 요소였다 하겠다. 이 점은 <李氏仁豐園>에서도 보인다.

李衛公이 <平泉花木記>를 지었는데²⁹⁾ 백여 종을 기록하였을 뿐이다. 지금 낙양의 우수한 工匠들은 빨간 花卉를 깎고 흰 花卉를 갈라 다른 나무로 접붙여 조화롭고 기묘함을 다룬다. 그래서 해마다 더 기이해지고 또 넓어져서, 복숭아와 오얏, 매화와 살구, 연꽃과 국화 등이 각각 수십 종이나 된다. 모란과 작약은 백여 종에 이른다. 또 먼 지방의 기이한 화훼 예를 들자면 紫蘭, 茉莉, 瓊花, 山茶 따위는 심기조차 어렵다고 이름이 나있는데도 유독 낙양에 심으면 그 土產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洛陽 園圃의 꽃과 나무가 천여 종에 이른다. ‘甘露園’의 동쪽에 있는 ‘李氏園’은 사람의 힘으로 아주 잘 가꾸어 洛中의 꽃과 나무가 없는 것이 없다.³⁰⁾

여기에서는 모란뿐만 아니라 낙양의 모든 名花를 옮겨 심고, 갖가지 진귀한 꽃나무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접목을 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정도로 꽃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림을 조성하는데 있어 ‘賞花’ 행위가 그만큼 중시되었다는 것이다.

모란이 ‘雅俗共賞’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한다면, 대나무는 송대 문인사대부

一枝千錢，姚黃無賣者。

28) 歐陽修的《洛陽牡丹記·花釋名》참조.

29) 李德裕의 <平泉山居草木記>를 가리킨다.

30) <李氏仁豐園>: 李衛公有<平泉花木記>, 百餘種耳. 今洛陽良工巧匠, 批紅判白, 接以它木, 與造化爭妙, 故歲歲益奇且廣, 桃、李、梅、杏、蓮菊, 各數十種. 牡丹、芍藥至百餘種. 而又遠方奇卉, 如紫蘭、茉莉、瓊花、山茶之儔, 號爲難植, 獨植之洛陽, 輒與其土產無異, 故洛陽園圃花木有至千種者, 甘露院東李氏園, 人力甚治, 而洛中花木無不有.

들이 자신들만의 雅趣와 충절을 나타내기 위해 항상 갖추었던 요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와 자연적인 요소들을 잘 조화시키는 것도 문인원림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다. <歸仁園>에서 문인사대부들이 어떤 원림을 조성하고자 하였는지 잘 나타난다.

‘歸仁’은 그 坊의 이름이다. 정원이 이 坊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너비와 둘레 모두 1리 남짓하다. 북쪽에는 모란과 작약이 천 그루 있고, 가운데에는 대나무가 백 畝 있으며, 남쪽으로는 복숭아와 오얏이 눈에 가득 들어온다. 唐나라 丞相 牛僧孺의 정원이었으며 七里檜는 그(때의) 옛 나무이다. 지금은 中書 李侍郎(李清臣)에게 귀속되었는데, 마침 그 가운데에 정자를 짓고 있다. 河南城은 사방이 50여 리로, 가운데 큰 정원과 연못이 많지만 이곳을 으뜸으로 친다.³¹⁾

방향 상,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모란과 작약, 대나무, 그리고 복숭아와 오얏나무를 배치한 것으로 보아 계절에 따라 꽃을 다르게 감상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것들을 감상하기 위한 정자를 가운데에 짓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 원림이 ‘賞花’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²⁾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원림에서의 ‘賞花’ 행위는 단순히 꽃만 감상하는 고상한 활동이 아니었다. 賞花를 위해 개방된 원림은 술자리를 갖추고 다른 이들과 교류하는 유흥적인 공간이기도 하였다.

다음은 <董氏東園>의 일부분이다.

거처할만한 堂이 있는데, 董氏가 번성했을 때에 가무를 즐기며 놀다가 취하여 돌아갈 수 없으면 이곳에서 수십일 동안 숙박했다고 한다. …… 물은 사방으로 뿜어져 연못 가운데로 쏟아져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飛瀑처럼 물이 쏟아지지만 연못이 넘치지 않는다. 잔뜩 술에 취한

31) <歸仁園>: 歸仁, 其坊名也, 園盡此一坊, 廣輪皆里餘. 北有牡丹、芍藥千株, 中有竹百畝, 南有桃李彌望. 唐丞相牛僧孺園七里檜, 其故木也. 今屬中書李侍郎, 方蒨亭其中. 河南城方五十餘里, 中多大園池, 而此爲冠.

32) 이미 3.1에서 낙양의 원림은 다른 경물 요소보다 물과 花木을 중요시하였다고 하였는데, <洛陽名園記>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花木 감상을 중심으로 하는 원림들 외에 물을 중심으로 조성된 것으로 <環溪>·<湖園>·<叢春園>이 있다.

洛陽 사람이 그 堂에 달려 올라갔다가 문득 술이 깬던 까닭에 세속에서는 '醒酒池'라 불렀다.³³⁾

'董氏東園'은 당시 洛陽에서 富를 축적하였던 董氏 가문이 조성한 민간원림이다. 宋代부터 도시의 상업이 발달하여 일반 백성들 중에도 개인적으로 원림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원림을 조성한 이후에 당시에 유명한 문인들에게 '記文'을 지어달라고 청탁하기도 하였다.³⁴⁾ 그리고 그들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문인 원림 못지않게 각각의 특색을 잘 살려내도록 여러모로 심혈을 기울여 원림을 조성하였다. 董氏는 자신의 원림을 개방하여 다른 이들과 교류하였으며 그의 東園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이상에서 李格非가 洛陽의 원림 구성 요소 중에서도 꽃에 주안점을 두고 많이 서술하였고, 그 중에서도 모란은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洛陽에서 모란에 대한 '賞花'는 신분고하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로 어울려 즐기는 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李格非라는 文人이 洛陽의 원림을 평가하고 기록함에 있어서 '與民同樂'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란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감상하도록 자신의 원림을 일시적으로 개방했던 것도 어느 정도 당시 문인들이 원림을 '與民同樂'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구성하였다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3) <董氏東園>: 有堂可居. 董氏盛時, 載歌舞遊之, 醉不可歸, 則宿此數十日. …… 洛人盛醉者, 走登其堂輒醒, 故俗目曰醒酒池'.

34) 歐陽修, 曾鞏, 蘇氏三父子 및 王安石 같은 宋 六大家뿐만 아니라 송대 문인 대부분이 자신이 건물을 짓고 '記文'을 창작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의 청탁으로 많은 '記文'을 창작하였다. 楊慶存은 唐宋시기 작가들이 쓴 記文의 수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계를 냈는데, 그의 통계에 따르면 韓愈가 9편, 柳宗元이 33편, 歐陽修가 45편, 蘇軾이 63편, 王安石이 24편, 曾鞏이 34편, 葉適이 54편, 朱熹가 81편, 陸游가 56편이다. 아울러 그는 특히 건축물 관련 記文은 宋代 문인들이 많이 창작하였음을 밝혔다. 楊慶存, <宋代散文體裁樣式的開拓與創新>, 《中國社會科學》, 1995 참조.

3.3. 흥망성쇠를 살피는 공간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登高한 후에 멀리 내다보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名山 大川에는 대부분 높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다. 역대 문인들은 높은 곳에서 조망하면서 그곳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특히 ‘登高’한 후에 지어진 詩歌 작품들 중에는 이러한 건축물에 올라 時空의 변화를 인지하고 찬탄한 것들도 있다.³⁵⁾ 다시 말해 역대 문인들에게 높은 곳에 지어진 건축물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를 인식하게끔 한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宋代 건축물 관련 記文은 이전에 비해 의론성이 짙어진다는 특징이 있다.³⁶⁾ 宋代의 문인들은 이러한 공간 인식을 대부분 議論 부분에 첨가하여 표현하였는데, 蘇軾의 <凌虛臺記>에 이러한 전형적인 특징이 잘 나타난다.

나라가 終南山 아래에 자리 잡았으니 기거하고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이 의당 산과 접해있을 것 같다. …… 누대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을 때, 태수 陳公이 지팡이 짚고 짚신을 신고 천천히 걸으며 그 아래를 노닐고 있자니, 산이 숲 위로 솟아 있는 것이 보였는데 (산봉우리가) 첩첩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담장 밖으로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는데 그들의 상투만 보이는 것 같았다. …… “일찍이 시험 삼아 陳公 당신과 함께 한 번 누대에 올라 바라보니, 그 동쪽은 秦穆公의 祈年宮과 橐泉宮이 있던 곳이고, 그 남쪽은 漢武帝의 長楊宮과 五柞宮이 있던 곳이며, 그 북쪽은 隋나라 때의 仁壽宮이자 唐나라 때 九成宮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융성함을 생각해보면, 웅대하고 화려한 모습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기세가 어찌 단지 樓臺의 백배만 될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난 후에 그 어렴풋한 모습을 찾으려 해도, 깨진 기와와 허물어진 벽도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으며, 이미 벼와 기장이 자라는 논밭이나 가시나무로 뒤덮여 황폐한 언덕이 되어 버렸으니, 하물며 이 누대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누대조차도 장구하리라 믿을 만하지 못하니, 하물며 인간사의 득실이 훌연히 가고 훌연히 오는 것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과시하면서 자족하고 싶어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있겠으

35)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唐代 陳子昂의 <登幽州臺歌>와 杜甫의 <登高> 등이 있다.

36) 沈慶昊, 앞의 책, 216-218쪽 참조.

나, 그것이 누대의 존재나 소실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³⁷⁾

이 작품은 鳳翔府의 太守였던 陳希亮이 ‘凌虛臺’를 짓고 蘇軾에게 청탁하여 지은 기문이다. 그는 높은 곳에 올라 옛 일을 회고하고 고금의 흥망성쇠의 변화를 언급하며 凌虛臺와 사람의 일은 모두 오래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믿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론을 도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蘇軾 때에 이미 높은 곳에 건설한 누대에 대한 공간 인식이 성숙해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이라는 공간을 통해 흥망성쇠를 살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고 찬탄하는 특성은 《洛陽名園記》 중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大字寺園>이 바로 그 예이다.

大字寺園은 唐나라 白樂天의 옛 정원이다. 백낙천이 이르길, “나는 私邸가 履道坊에 있는데, 五畝의 택지와 十畝의 정원에 하나의 연못과 대나무 천 그루가 있다.”고 한 것이 이곳이다. 지금 張氏가 그 반을 얻어 ‘會隱園’을 만들었는데, 물과 대나무가 여전히 낙양에서 제일이다. 다만 그 도면으로 살펴보면 어떤 堂에 어떤 물이 있고 어떤 정자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물과 나무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으나 ‘堂’이나 ‘亭’이라 한 것은 더 이상 비슷한 것이 없다. 어찌 天理로 인한 것은 오래갈 수 있지만 人力으로 이룬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절 가운데에는 白樂天의 石刻으로 남아있는 있는 것이 아직도 많다.³⁸⁾

여기에서는 唐代 白居易의 정원이었던 ‘大字寺園’의 과거와 현재를 기술하고 있다. 백거이가 처음에 조성했던 이 원림의 규모와 현재 張氏라는 사람이 그

37) 蘇軾, <凌虛臺記>: 國於南山下, 宜若起居飲食與山接也. ……方其未築也, 太守陳公, 杖屨道遙於其下, 見山之出於林之上者, 纍纍然如人之旅行於牆外而見其髻也. ……“嘗試與公登臺而望, 其東則秦穆之祈年、橐泉也; 其南則爲漢武之長楊、五柞, 而其北則隋之仁壽、唐之九成也. 計其一時之盛, 宏傑詭麗, 堅固而不可動者, 豈特百倍於臺而已哉! 然而數世之後, 欲求其髣髴, 而破瓦頽垣, 無復存者. 既已化爲禾黍荊棘丘墟隴畝矣, 而況於此臺歟! 夫臺猶不足恃以長久, 而況於人事之得喪, 忽往而忽來者歟! 而或者欲以夸世而自足, 則過矣. 蓋世有足恃者, 而不在乎臺之存亡也.”

38) <大字寺園>: 大字寺園, 唐白樂天舊園也. 樂天云, “吾有第在履道坊, 五畝之宅, 十畝之園, 有水一池, 有竹千竿.” 是也. 今張氏得其半, 爲‘會隱園’, 水竹尚甲洛陽, 但以其圖攷之, 則某堂有某水, 某亭有某木. 其水其木, 至今猶存, 而曰堂曰亭者, 無復彷彿矣. 豈因于天理者可久, 而成于人力者不可恃耶? 寺中, 樂天石刻存者尚多.

반을 얻어 새로 조성한 ‘會隱園’을 대비시키면서, 구체적인 예로 물과 대나무가 낙양에서 제일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때 있었던 건물들은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蘇軾의 <凌虛臺記>에서와 같은 공간 인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李格非 또한 원림을 ‘홍망성쇠’를 살피는 공간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董氏東園>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董氏는 洛陽에서 재산이 가장 많았는데, 元豐 연간에 縣官에게 錢糧을 빚져 田宅이 모두 몰수되었다. 성 가운데 두 정원은 황폐하고 허물어짐으로 인하여 가꾸지 않았다. 그러나 그 규모는 아직도 죽히 칭찬하고 감상할 만하다. 東園은 北鄉에 위치하며, 문을 들어서면 열 아름 쫘 되는 향나무가 있는데, 열매는 작아서 솔방울 같으나 달콤한 향기는 더욱 좋다. 사람이 거처할 만한 당이 있는데, 董氏가 번성할 때에 그곳에서 가무를 즐기며 놀다가, 취하여 돌아갈 수 없으면, 이곳에서 수십일 동안 숙박했다고 한다. 남쪽에는 무너진 집터가 있는데, 단지 ‘流盃亭’과 ‘寸碧亭’ 두 정자만큼은 아직도 완전하다.³⁹⁾

여기에서는 예전에 낙양에서 가장 부유했던 董氏가 조성한 원림이 황무지가 되고 허물어진 것을 기술하며 이어서 과거에 그가 번성했을 때의 상황을 대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流盃亭’이라는 정자의 이름에서 과거에 이곳에서 ‘流觴曲水’하며 여유로움을 만끽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하나의 공간에서 허물어진 부분과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의 대비를 통하여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李格非는 이와 같이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 지금의 상황을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기법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呂文穆園>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것 말고도 ‘嘉猷’와 ‘會節’, ‘恭安’과 ‘溪園’ 등이 있는데, 모두 隋나라와 唐나라

39) <董氏東園>: 董氏以財雄洛陽, 元豐中, 少縣官錢糧, 盡籍入田宅. 城中二園因蕪壞不治. 然其規模尙足稱賞. 東園北鄉, 入門有栢可十圍, 實小如松實, 而甘香過之. 有堂可居. 董氏盛時, 載歌舞遊之, 醉不可歸, 則宿此數十日. 南有敗屋遺址. 獨流盃、寸碧二亭尙完.

때 官府의 정원이었다. 비록 이미 갈아서 좋은 밭으로 개간하고 뽕나무나 삼을 심었지만 궁전, 연못과 한 때 모임의 성대함에 대해서 지금도 遺俗을 아는 노인 중에는 아직도 그 소재지를 기억하고 흥폐의 단서를 말하는 이가 있다. 그곳을 유람해보면 또한 만물이 무상함을 살펴 볼 수 있고, 때가 갑자기 왔다가 훌쩍 가버림을 살필 수 있다.⁴⁰⁾

여기에서는 洛陽의 여러 원림의 예를 들며 隋唐 시기에는 官府의 정원이었으나 지금은 개간한 농토로 변하였으며, 한 때에는 사람들이 성대하게 모여 어울리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노인들의 회고와 유람을 통해 그 원림의 흥망성쇠를 파악하고 세월의 무상함을 탄탄하고 있다. 그가 원림을 통해 한 가문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시대적 흥망성쇠를 인식하고 있음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

다음은 李格非가 《洛陽名園記》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자신의 편찬 의도를 나타낸 <記《洛陽名園記》後序>이다.

낙양은 천하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여, 穀山과 澠池의 험준함을 끼고 있으며 秦과 隴 지역의 옷깃과 목구멍에 해당하고 趙나라와 魏나라의 국경 요충지이므로 사방에서 반드시 다투는 땅이다. 천하에 항상 아무 일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곧 낙양이 반드시 먼저 戰禍를 입었다. 나는 그리하여 말하기를, “낙양의 흥망성쇠는 천하가 잘 다스려지는 것과 어지러워지는 징후이다.”라고 하였다.

바야흐로 唐나라 貞觀과 開元 연간에 공경과 귀족 왕족들이 동도 낙양에 별관을 열고 저택을 벌여놓은 것이 천여 집이나 된다 하였다. 난리가 나고 오대의 참혹함이 이어지게 되어서는, 그 연못과 대나무며 나무는 병거가 짓밟아 황폐해져 언덕이 되어 버렸고, 높은 정자와 누대위의 정자는 불에 활활 타버려 잿더미로 변해버렸으니, 唐나라와 함께 멀하여 모두 없어져 남은 곳이 없었다. 내가 그리하여 일찍이 말하기를, “정원의 흥함과 폐함은 낙양이 흥망성쇠하는 징후이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천하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洛陽의 흥망성쇠를 살펴서 알 수 있으며 낙양의 흥망성쇠는 정원의 흥함과 폐함을 살펴서 알 수 있으니, 《洛陽名

40) <呂文穆園>: 舍此又有嘉猷、會節、恭安、溪園等, 皆隋唐官園, 雖已犁爲良田, 樹爲桑麻矣. 然宮殿池沼, 與夫一時會集之盛, 今遺俗故老, 猶有識其所在, 而道其廢興之端者, 游之, 亦可以觀萬物之無常, 覽時之倏來而忽逝也.

園記》의 저작이 내 어찌 헛된 일이라 하겠는가?

아아! 공경대부가 바야흐로 조정에 나아가 개인의 사사로움에 방종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천하의 다스려짐과 혼란스러움을 망각하고, 물러나서는 이 즐거움을 누리고자 한다면 되겠는가? 唐나라의 말로가 이러하였도다!⁴¹⁾

문장 전체에서 그가 원림을 홍망성쇠를 살피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는 ‘洛陽의 홍망성쇠’는 ‘천하가 잘 다스려지는 것과 어지러워지는 징후’라고 먼저 분명히 밝히고, 이어서 ‘정원의 홍합과 폐함은 洛陽이 홍망성쇠하는 징후’라고 하여 晚唐 시기의 풍조와 대비시켜 사대부들에게 ‘원림’이라는 공간을 단지 사사로이 휴식과 여흥을 위한 공간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가 원림을 기존의 문인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휴식과 여러 사람들과 즐기고 교류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나오며

이상에서 중국인들이登高 후에 시점 변화로 얻게 되는 여러 意象들과 연관 지어, 李格非의 《洛陽名園記》를 중심으로 거기에 드러나는 北宋 시기 문인들의 원림에 대한 공간 인식들을 살펴보았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첫째, 園林이라는 공간은 北宋 시기 문인들에게 있어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임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소극적으로 자연과의 合一을 추구하기 위한 공간

41) <記《洛陽名園記》後序>: 洛陽處天下之中, 挾穀、澠之阻, 當秦、隴之襟喉, 而趙、魏之走集, 蓋四方必爭之地也。天下常無事則已, 有事則洛陽必先受兵。予故嘗曰, “洛陽之盛衰者, 天下治亂之候也。” 方唐貞觀、開元之間, 公卿貴戚開館列第於東都者, 號千有餘邸, 及其亂離, 繼以五季之酷, 其池塘竹樹, 兵車蹂踐, 廢而爲丘墟; 高亭大榭, 煙火焚燎, 化而爲灰燼, 與唐共滅而俱亡者, 無餘處矣。予故嘗曰, “園圃之興廢, 洛陽盛衰之候也。” 且天下之治亂, 候於洛陽之盛衰而知; 洛陽之盛衰, 候於園圃之興廢而得, 則《名園記》之作, 予豈徒然哉? 嗚呼! 公卿大夫方進于朝, 放乎一己之私意以自爲, 而忘天下之治忽, 欲退享此樂, 得乎? 唐之末路是矣!

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높은 곳을 보는 仰視를 통해 자연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고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그는 원림의 구성 요소 중 꽃을 중요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洛陽의 모란은 '賞花'를 통해 원림을 '與民同樂'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특수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여러 구성 요소들 자체와 그 시기를 있는 그대로 감상하면서 즉각적이면서도 직접적인 감정을 풀어내게 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平視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가 원림을 흥망성쇠를 살피고 경계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멀리 지상의 만물과 세대를 살피고 반성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俯視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문장 안에서 시간적으로 古今을 대비하고 동시에 현재 원림의 공간적 상황을 나타냄으로써 時空의 변화를 아울러 표현하는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후대 園記 창작 경향이 주로 원림 안에 배치되어 있던 경물 묘사에 치중했던 것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 하겠다.

《洛陽名園記》는 편폭이 짧고 또 서술 대상 지역이 '洛陽'이라는 공간에 제한되어 있어 문인들의 공간 인식을 확정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통시적인 관점으로 북송 시기 여러 문인들의 '園記'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하는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다.

< 參考文獻 >

- 李格非, 《洛陽名園記》, 臺北: 藝文印書館, 1965.
 李格非, 《洛陽名園記》, 《四庫全書》文淵閣本.
 孔穎達, 《毛詩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王 肅, 《孔子家語》, 臺北: 中華書局, 1966.
 班 固, 《漢書》, 臺北: 世界書局, 1973.
 蕭 統, 《文選》, 臺北: 文津出版社, 1987.

- 周振甫, 《文心雕龍今譯》, 北京: 中華書局, 2005.
- 王禹偁, 《小畜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8.
- 歐陽修, 《洛陽牡丹記》, 臺北: 藝文印書館, 1965.
- 蘇軾, 《蘇軾文集》, 北京: 中華書局, 1986.
- 邵伯溫, 《邵氏聞見錄》, 北京: 中華書局, 1983.
- 邵博, 《河南邵氏聞見後錄》, 臺北: 藝文印書館, 1965.
- 邵博, 《邵氏聞見後錄》, 北京: 中華書局, 1983.
- 陳植·張公弛, 《歷代名園記選注》, 合肥: 安徽科技出版社, 1983.
- 李澤厚, 《美的歷程》, 天津: 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 2008.
- 侯迺慧, 《宋代園林及其生活文化》, 臺北: 三民書局, 2010.
- 장파 저, 유중하 등 옮김,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파주: 푸른숲, 2009.
- 안영길 역, 《중국미술사 3 — 五代부터 宋元까지》, 서울: 다른 생각, 2011.
- 리우칭시 저, 한민영 등 역, 《원림》, 서울: 대가, 2009
- 岡大路 저·金永彬 역, 《中國庭園論》, 대구: 中文出版社, 1987.
- 張家驥 저·심우경, 이창호, 심현남 역, 《중국의 전통 조경 문화 — 중국 전통 원림 문화의 사상적 배경과 이론》, 서울: 문운당, 2008.
- 오태석, 《중국문학의 인식과 지평》, 서울: 역락출판사, 2001.
- 沈慶浩, 《漢文 散文의 美學》,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서울: 넥서스BOOKS, 2004.
- 신하영, <登高遠望形象에 관하여>, 《中國語文學誌》15집, 2004.
- 姜泰昊, <中國 洛陽城의 空間構造 및 園林 研究>, 《韓國庭園學會誌》17輯, 1999.
- 이철원, <중국의 전통건축문화에 반영된 정치적 의미>, 《중국문화연구》, 2006.
- 박경자 역, <洛陽名園記>, 《동양미술사학》3집, 2002.
- 김지선, <<홍루몽>을 통해 본 중국의 원림문화 — 大觀園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22집, 2006.
- 심우영, <<園林記>를 통해 본 강남지역 명청대 士人들의 교유관계 연구(1)>, 《中國語文論譯叢刊》, 18집, 2006.
- 손오규, <산수문학에서 '曲歌산곡辭'의 공간의식>, 《한국문학논총》 제32집, 2002.
- 박기석, <한양 도시문화의 공간적 배경과 문학연구>, 《고전문화와 교육》17집, 2009.
- 瞿明剛, <試論中國文學의登高主題>, 《江海學刊》, 1994年 2月.
- 楊慶存, <宋代散文體裁樣式的開拓與創新>, 《中國社會科學》, 1995.

- 李 園, <淺析登高母題發生期之特徵>, 《貴州社會科學》, 2007年 第1期.
- 姜曉紅, <唐詩中的登高意象初探>, 《韓山師範學院學報》, 2007年 第2期.
- 李 浩, <《洛陽名園記》與唐宋園史研究>, 《理論月刊》, 2007年 第3期.
- 祁志祥, <柳宗元園記創作芻議>, 《文學遺產》 2007年 5期.
- 姜曉紅, <古代文人登高審美及其文學創作>, 《社會科學家》, 2008年 7月.
- 郁 敏, <從《洛陽名園記》中尋找北宋洛陽私家園林>, 《太原城市職業技術學院學報》, 2010年 8期.
- 汪聖鐸, <宋代種花、賞花、簪花與鮮花生意>, 《文史知識》, 2003年 7期.

< 中文提要 >

歷史上, 宋代隨著經濟和文化的發達, 與建築物有關的“記文”創作應運而生。現在從美學的觀點與哲學的觀點來, 對與建築物有關的“記文”繼續進行研究。不過對宋代作品而言, 只提到幾個作家的幾篇文章而已, 大都是以明清代的作品為主進行研究的。對宋代“園記”而言, 大部分只不過在造景學或建築學上與園林造成連貫研究而已, 可以說其研究還有欠妥之處。李格非的《洛陽名園記》一直有代表北宋時期“園記”的評價。可是文學上, 只重視<記《洛陽名園記》後序>, 和其作家李格非是宋代有名的女詞人“李清照”的父親這一點而已, 文章裏其他作品都被看做局外的, 所以文學方面的研究不太多。

正式的園記創作是隨著北宋時期文人園林的登場後應運而生的。本人著眼於此點, 首先對其創作有關的文人的空間認識方法——“登高”進行考察。而後以《洛陽名園記》為中心, 考察了當時文人對園林的認識如何。在此篇文章當中, 可以發現北宋時期文人的空間認識就有三種: 一、在城市裏消極地追求“自然合一”的空間。二、為“與民同樂”的空間。三、為觀察興亡盛衰而警戒的空間。

可是其實《洛陽名園記》本身篇幅較短, 而且題材限於“洛陽”的園林空間, 於是有所難以確定文人的空間認識。所以希望以後進行擴大範圍, 還從歷時觀點來有體系地研究考察北宋文人的“園記”。

關鍵詞: 宋代“記”文、文人士大夫、園林、園記、《洛陽名園記》、空間認識、登高、自然合一、與民同樂、賞花、興亡盛衰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3. 30.	2012. 5. 3.	2012. 5. 12.	2012. 5. 21.	2012. 5. 31.